

K O R E A   M A R I T I M E   I N S T I T U T E

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

● Contents



□ 중국 COSCO사 크로아티아 리예카(Rijeka) 항 개발에 투자	2
□ 브라질 벨렘항(Port of Belém) Tecobel 컨 터미널 운영권 입찰 예정	4
□ 오만, 살랄라항 확장 계획 발표	5
□ 브라질 아라투(Aratu) 항 확장 개발 계획 발표	6

## □ 중국 COSCO사 크로아티아 리예카(Rijeka) 항 개발에 투자

- 글로벌 해운기업 중국 COSCO사가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개발<sup>1)</sup>에 투자확정을 발표하면서 리예카 항이 중국의 중유럽 진출의 중요 항만 기지로 기대됨
- COSCO사는 꾸준히 해외항만 투자<sup>2)</sup>를 하고 있으며 이번 리예카항 개발 사업은 중국이 중유럽 국가들과 교역시 리예카 항이 화물운송에 있어 최적지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고려한 사업임

도시	리예카와 도로 거리(km)	리예카와 철도거리(km)
뮌헨	560	574
비엔나	490	572
브라티슬라바	550	686
부다페스트	502	595
사라예보	456	490
베오그라드	569	669

< 리예카와 인근국가 수도와의 거리 >



- 리예카항 측에서도 중국의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순조로운 투자를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협조할 것으로 밝힘
- 리예카항 개발 예상금액은 5~10억 유로 사이로 추정
- COSCO사는 항만 개발 이외에 항구와 연결되는 철도건설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건설 소요 금액은 약 39억 달러가 예상됨
- 리예카항과 연결되는 철도는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(Zagreb)를 통과하여 헝가리 국경까지 연계됨

1) 본 사업은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2008년에 발굴한 사업으로 당시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 물류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인해 참여를 포기한 사업임(2008.4 <동유럽 항만개발 사업타당성 조사> 보고서 내 포함)

2)

연도	COSCO사의 해외 투자 내용
201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Yantian 항만의 운영사 Maersk의 지분 13.7% 매입</li> <li>□ 대만 카오슝 항만 컨 터미널 개발(현재 카오슝항만의 지분 40%보유)</li> <li>□ 그리스 아테네 컨테이너 항만 운영권 획득</li> </ul>
201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인도네시아 깔리바루 프로젝트 사업선정자로 참여</li> </ul>

구분	내용
길이	404km
속력	120km/h
통과시간	5시간
화물처리량	연간 3천만 톤

< 리예카~보토보 연결 철도 >



- 리예카항은 북아드리아해에 인접해 있는 항만중 물동량이 가장 많으며 유럽시장으로 진출하는 복합운송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음

< 크로아티아 주요 항만 물동량 >

단위: 백만 톤

	2008	2009	2010
리예카(Rijeka)	12,39	11,24	10,18
플로체(Ploce)	5,14	2,87	4,53
스플리트(Split)	2,99	2,47	2,99
자다르(Zadar)	0,66	0,47	0,61
시베닉(Sibenik)	-	0,45	0,64

자료 : www.hellenicshippingnews.com, www.portauthority.hr 2012.5.1

이성우 연구위원 (☎ 02-2105-2830, waterfront@kmi.re.kr)

## □ 브라질 벨렘항(Port of Belém) Tecobel 컨 터미널 운영권 입찰 예정

- 브라질 북부 파라(Para) 주의 항만 개발 및 운영 담당 국유기업인 CDP(COMPANHIA DO CAS DO PARÁ)가 벨렘항(Port of Belém)의 Tecobel 컨테이너 터미널의 확장 및 운영권에 대해 2012년 말에 입찰을 실시할 예정임
  - Tecobel 터미널의 연간 처리능력을 현재의 3만 TEU에서 14만 TEU로 증대하기 위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야드를 확장하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며, 운영기간은 25년 예정임
  - 사업규모는 8,400만 헤알(약 4,410만 달러)로 알려지고 있으며, 브라질 해상교통청(National Waterway Transport Agency)인 ANTAQ에서 운영권 입찰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임
  - ANTAQ의 승인을 득한 후에는 연방감사원(Federal Audit Court)인 TCU의 최종 검토를 거쳐야 하며, 이에 따라 CDP에서는 2012년 말에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벨렘항의 2011년 처리 물동량은 약 71만 톤이며, 이중 컨테이너 화물은 약 23만 톤으로 전체의 33%를 차지하고 있음
  - 벨렘항은 아마존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, 대서양과는 120km 거리이며, 벨렘항의 부두 전체길이는 약 1,450m임

< 벨렘항 위치 >



< Tecobel 컨테이너 터미널 >



※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132호 참조

자료 : www.bnamericas.com 2012/5/2, www.worldcargonews.com 2012/5/8

송주미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72, [jmsong@kmi.re.kr](mailto:jmsong@kmi.re.kr))



## □ 오만, 살랄라항 확장 계획 발표

- 오만 교통·통신부(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)는 살랄라항(Port of Salalah)의 일반 화물 처리능력<sup>1)</sup>을 두배 이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143백만 달러 규모의 입찰 계획을 승인
  - 금번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드라이 벌크화물 20백만 톤, 액체화물 6백만 톤에 달하는 처리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
  - 관계자에 따르면, 살랄라항의 신규 확장 개발로 오만지역에 지속적인 비즈니스 발전과 지역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
- 살랄라항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아라비안해안의 오만 연안에 위치하여 세계 주요 항로로 이용하기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으며, 아라비안해안, 인도대륙, 홍해, 동아프리카 시장의 환적화물을 선점하기에 적합
  - 살랄라항은 2011년에 3,200천 TEU를 처리하여 중동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컨테이너항으로 자리매김
  - 한편 살랄라항은 오만에서 가장 큰 항만으로 APM Terminals<sup>2)</sup>이 부분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, 수심 18m의 7개 컨테이너 선석, 수심 16m의 12개 일반화물 선석으로 구성됨
- 살랄라항의 동 프로젝트에는 추가적으로 수심 18m, 길이 1,200m의 다목적부두와 액체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건설이 포함
  - 신규 액체화물 터미널은 연료, 메탄올, 부동액원료, 가성소다 등의 주요 산업물자 및 석회석, 석고, 시멘트, 플라스틱 등을 포함하는 드라이벌크 화물을 처리할 계획임
  - 아울러 살랄라항이 컨테이너화물, 액체 및 일반 벌크화물의 지역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성장이 증가하고 있는 오만 남부 도파르(Dhofar)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됨

< 살랄라항 위치 >



< 살랄라항 전경 >



자료 : <http://worldmaritimenews.com>, 2011. 5. 4

황현주 연구원 (☎ 02-2105-2897, [julya7@kmi.re.kr](mailto:julya7@kmi.re.kr))

1) 현재 연간 일반화물 처리능력은 5.5백만 톤임

2) 살랄라항은 APM Terminals에서 30%, 오만정부 20%,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 50% 지분율로 구성됨

## □ 브라질 아라투(Aratu) 항 확장 개발 계획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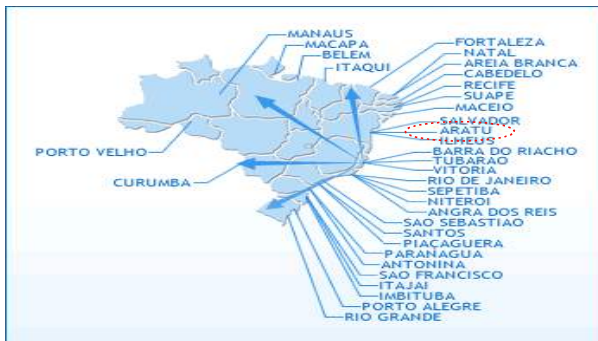
-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아라투(Aratu) 항 확장 계획을 발표
  - 브라질 Codeba 주 항만청은 2012년에 6억8,500만 레알(약3억 5,700만 달러) 규모의 아라투항 확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함
  - Codeba 항만청장은 확장 개발과 두 개의 벌크 터미널 중 한 개의 터미널 운영권 입찰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힘
  - 운영권 입찰에는 약 1억 5천만 레알 규모의 전기시설 장치 업그레이드와 신규 컨베이어 벨트 설치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
  - 벌크 터미널은 시설설비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지만 바이아의 Chapada Diamantina 지역에 있는 철광석과 기타 광물을 처리하고 있음
- 또한 액체 벌크 터미널의 선석 2개 신설과 액체 벌크 저장 시설 건설을 포함하고 있음
  - 소요 예산은 약 4~5억 레알 정도일 것이며 3,500만 레알은 항만 진입 도로 정비 및 철로 보수 공사에 사용될 예정
- 아라투항의 2010년 벌크화물 처리량은 5,592,862톤 이고 2011년은 5,179,538 톤임
  - 아라투항의 터미널 현황은 아래와 같음

### < 아라투 터미널 현황 >

터미널 이름	처리 화물	선석개수	선석길이
TPG	Gas Products	1개	189m
TGL	Bulk Liquids	2개	340m
TGS	Bulk Solids	3개	366m

자료 : Codeba Docks Company of the State of Bahia

### < 아라투항 위치 >



### < 아라투항 전경 >



자료 : www.bnamericas.com 2012.5.4

전혜경 연구원 (☎ 02-2105-2828, saei@kmi.re.kr)

## < 해외진출 예비타당성 무료조사 지원신청 안내 >

-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**예비타당성조사를 무료로 지원**하고자 합니다.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- 지원 기업
  -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
    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- 지원 사업
  - 해외 물류센터, CY 및 항만 터미널 등 물류시설의 개발·투자·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
  -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·운영
  - 해외파트너사와의 JV 설립 및 해외물류기업(해운선사, 3PL, 터미널 운영사 등)의 인수·합병 등
- 지원 범위
  - 본 예비타당성조사에 선행하는 현지 물류여건, 물동량 전망, 개략적인 수익 및 운영비 등 **예비타당성조사 4건 내외** 지원 예정(단, 기업당 1건 지원)
- 지원 기간 및 방법
  - 지원 기간 : 2012.4.26~ 2012. 5. 11(금) 24:00
  - 지원 방법 : '해외진출 예비타당성 무료조사 지원신청서'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
    - 황현주 연구원(julya7@kmi.re.kr) 및 전해경 연구원(saeii@kmi.re.kr)
- 지원신청서 평가 및 기타
  - 평가결과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, 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 60점 이상 획득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
  - 평가결과 공개 : 2012년 5월 중 KMI 홈페이지 또는 선정기업에게 개별연락
  -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  - 필요 시 현지출장 및 체재비 등 실비 등의 부담 요청 가능. 단, 선정 시 사전협의 예정
  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02-2105-2897/2982)로 문의

## 해외진출 예비타당성 무료조사 지원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	업종	
	소재지				
	매출액 (전년도)			당기순이익 (최근3년)	
프로젝트 개요	사업명				
	국가/지역				
	주요사업 내용				
	프로젝트 담당자	부서		Tel	
		직위		Fax	
성명			E-mail		
프로젝트 주요내용	<p>개략적 기술 (사업의 목적과 요약 내용 및 예상 규모, 5~10줄 이내 기술)</p> <p>※ 별첨 자료요청</p> <p>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5~10쪽 이내로 작성하여 별첨으로 송부(사업 배경·목적, 세부사업내용, 사업기간, 추진경위, 예상규모, 합작 파트너 및 특이사항 등)</p>				
<p>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기초타당성조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기업 : 대표자 : (인)</p> <p>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장 귀하</p>					
첨부서류 목록					